

국문독본

내일
이미지
국문교육반
용



1987.3.29

80

문교부

차 례

1.

한글 첫걸음

2.

(1) 우리 나라	23
(2) 속 담	24
(3) 애국가	25
(4) 국 기	26
(5) 우리의 할 일	28
(6) 선거와 투표	29
(7) 시 조	31

3.

수) 세기와 쓰기	32
-----------	----

닿소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ㅅ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ㅉ

흘소리

ㅏ ㅑ ㅓ ㅕ ㅗ ㅕ ㅗ
ㅕ ㅓ ㅑ ㅓ ㅡ ㅣ
ㅓ ㅑ ㅓ ㅓ ㅕ ㅓ ㅓ
ㅓ ㅓ ㅕ ㅓ ㅔ ㅓ ㅔ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ㅅ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ㅉ
ㅆ ㅆ ㅆ ㅆ ㅆ 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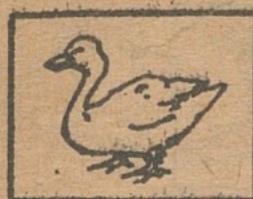
ㅏ	ㅑ	ㅓ	ㅕ	ㅗ	ㅕ	ㅜ	ㅕ	ㅡ	ㅣ
가	갸	거	겨	교	교	구	규	그	기
나	나	녀	녀	뇨	뇨	누	뉴	느	니
다	댜	더	더	도	도	두	두	드	디
라	랴	려	려	료	료	루	류	드	리
마	마	머	며	묘	묘	무	뮤	브	미
바	뱌	버	벼	보	보	부	부	스	비
사	샤	서	셔	소	소	수	슈	으	시
아	야	어	여	오	오	우	유	즈	이
자	쟈	저	져	조	조	주	쥬	츠	지
차	챠	처	쳐	초	초	추	츄	크	치
카	캬	커	켜	쿄	쿄	쿠	큐	트	키
타	탸	터	텨	토	토	투	튜	포	티
파	파	퍼	펴	포	포	푸	퓨	흐	피
하	하	허	혀	호	호	후	후	흐	히



아이
아



어머니
어



오리
오



우유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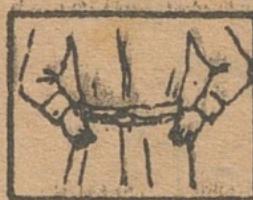


이마
이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	---	---	---	---	---	---	---	---	---



하나
하



허리
허



호미
호



후추
후

하	하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	---	---	---	---	---	---	---	---	---



마루

마



모기

모



미나리

마



머리

머



무우

무

마 마 머 머 모 모 묘 묘 무 무 뮤 뮤 미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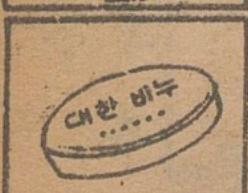
바 가지

바



보리

보



비누

비



아버지

버



부나비

부

바 바 버 벼 보 보 묘 부 부 뮤 브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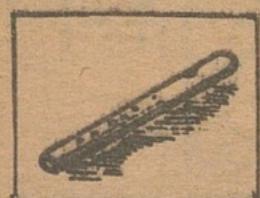
파리

파



포도

포



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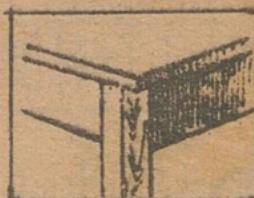
피

파 파 퍼 퍼 토 표 푸 푸 푸 퍼



사자

사



모서리

서



소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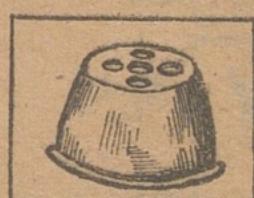
수수

수



부스러기

스



시루

시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츄 스 츄



자라



자자

조리



조조

지도

지지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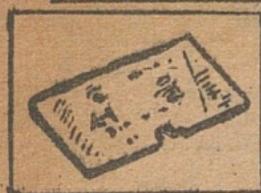
저저



주머니

주주

자자저져조조주주쥬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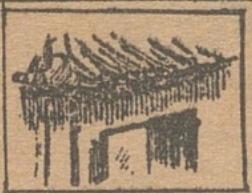


차표



차차

초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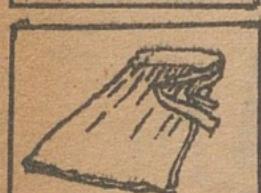


처마

처처

고고

추추



치마

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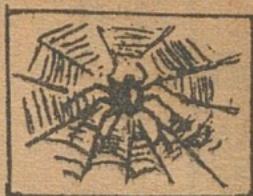


차차처쳐초초주주쥬즈치



가마

가



거미

거



고기

고



구두

구



그루

그



기차

기

가 가 거 겨 고 교 구 구 그 기



카나리아

카



코

코



키

키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쿠 키



나무
나



너구리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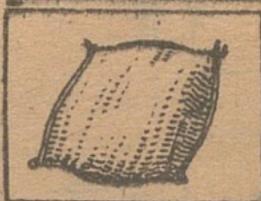
노루
노



누나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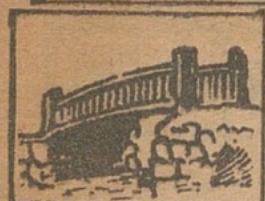


느티나무
느



가마니
니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	---	---	---	---	---	---	---	---	---



다리
다



두더지
더



도라지
도



두루미
두



버드나무
드



오디
디

다	댜	더	뎌	도	됴	두	듀	드	디
---	---	---	---	---	---	---	---	---	---



타래
타



도토리
토



투구
투

타 타 터 터 토 토 투 투 튜 튜 트 트 티



라디오
라



지느러이
러



도로
로



노루
루



호르라기
르



고리
리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나가거라.

어서 가거라.

어서 어서 자라거라.

고기가 노오.

보리가 자라오.

소나무가 크다.

버드나무가 푸르다.

우유 사 오너라.

구두 가져 오너라.

차표 사 오너라.

누가 가르치시더냐 ?

그 아이가 효자다.

호미 가지고 오너라.

너도 사자 보러 가자.

그 소가 느리구나.

ㅏ ㅑ ㅓ ㅕ ㅗ ㅘ ㅜ ㅛ ㅡ ㅣ

꺄 꺄 꺄 꺄 꺄 꺄 꺄 꺄 꺄 꺄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빠 빠 빠 빠 뽀 뽀 뽀 뽀 뽀 뽀
싸 싸 싸 싸 쏘 쏘 쏘 쏘 쏘 쏘
짜 짜 짜 짜 쪼 쪼 쪼 쪼 쪼 쪼



까치
까



표리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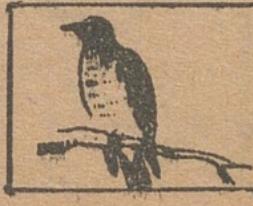
따오기
따



띠
띠



빠나나
빠



빠꾸기
빠



싸리비
싸



쓰르라미
쓰



찌끼
찌

어디까지 가느냐?

고추 따 오너라.

노루 꼬리가 짜르다.

너 요사이 바쁘냐?

쭈르르 미끄러지오.

너도 나도 아껴 쓰자.

어서 따라 오시오.

뻐쓰가 떠나오.

기차가 빼쓰보다 빠르다.

그 보에 싸 가지고 가거라.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개 내 대 래 매 배 새 애 재 채 캐 태 패 해
 거 네 데 레 메 베 세 에 제 체 켜 테 패 헤
 계 네 데 레 메 베 세 예 제 체 켜 테 패 혜
 괴 뇌 되 뇌 외 뇌 쇠 외 죄 죄 죄 퇴 죄 회
 커 뉘 뒤 뉘 위 뉘 쇠 위 죄 죄 죄 퇴 죄 휘
 파 뇌 되 뇌 외 뇌 쇠 외 죄 죄 죄 퇴 죄 회
 패 뇌 되 뇌 외 뇌 쇠 외 죄 죄 죄 퇴 죄 회
 기 뇌 되 뇌 외 뇌 쇠 외 죄 죄 죄 퇴 죄 회



애
거



베 개



외
기



쥐



기
와



왜 가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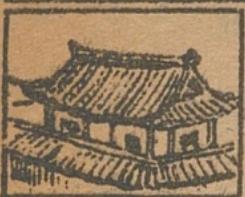
새, 재, 배, 냄, 배, 매, 대 (내)
제비, 메주, 세수, 베개, 겨레 (네)
시계, 예사, 세계, 차례 (케)
외, 쇠고기, 무쇠, 되, 회사 (뇌)
쥐, 커, 뒤, 위, 쥐미, 휘두르다 (끼)
기와, 파자, 화로 (파)
위사, 위자, 희다 (히)

배나무 가지에 새가 우오.
겨레 겨레 우리 겨레.
차례 차례 다 나가자.
누나가 회사에 다니오.
마루 위에 쥐가 기어가오.
저 화로가 뜨거우냐?
네 구두가 희다.

○	강	낭	당	랑	망	방	상	양	장	창	캉	탕	팡	항
人	갓	낫	닻	탓	맛	밧	삿	앗	찻	찻	탓	팟	핫	
日	갑	납	답	랍	밥	밥	삽	압	찹	찹	탑	팝	합	
口	감	남	담	람	밤	밤	삼	암	참	참	кам	탐	팜	함
艮	갈	날	달	랄	말	발	살	알	찰	찰	칼	탈	팔	할
ㄴ	간	난	단	란	만	반	산	안	잔	찬	칸	탄	판	한
ㄱ	각	낙	닥	락	막	박	삭	악	작	작	작	탁	팍	학



감 밤, 뺨, 담배, 감자, 샘
(ㅁ) (김, 심, 임, 남, 함, 염)



집 밥, 삽, 탑, 접시, 보습
(ㅂ) 톱, 입, 법, 엽서, 호흡



산 손, 문, 신, 신문, 혼인
(ㄴ) (한, 현, 윤, 안, 전, 민)

바람이 잠잠하오.

감나무가 점점 자라오.

접시에 담아라.

고기 잡으러 가자.

언니가 신문사에 다닌다.

언제 집으로 간다고 하더냐?

그림 엽서 좀 보여 주십시오.

아침부터 대단히 분주하오.



칼 말, 발, 살, 솔, 물, 일.

(2) 길, 설, 춘, 돌, 풀, 밀.



낫 못, 갓, 옷, 옛, 셋, 넷.

(3) 다섯, 잣, 맛, 봇, 벗.



독 먹, 룩, 책, 석필, 학교.

(7) (박, 백, 석, 탁, 꽈, 옥.)



농 통, 상, 콩, 기둥, 간장.

(0) (정, 강, 송, 홍, 양, 왕)

한글을 잘 배우자.

잣 맛은 고소하다.

먹을 곡식이 둑넉하다.

비향기가 빙빙 돈다.

북에는 백두 산, 남에는 한나 산

우리 마을은 매우 깨끗하다.

앞으로 나아가자.

앞 …… 앞에, 앞으로, 앞도, 앞파.

밭을 간다.

밭 …… 밭에, 밭을, 밭도, 밭파.

잘 받아라.

받 …… 받아서, 받으니, 받고, 받지.

앞, 숲, 짚, 무릎, 헝겊, 옷섶.

곁, 팔, 밭, 곁, 바깥, 끝.

맡아들, 숟가락, 선달.

높은 산, 깊은 내.

팥알을 날 날이 세고 있다.

저 사람은 결심이 굳은 사람
이다.

아이를 찾는다.

찾 … 찾아서, 찾으니, 찾고, 찾다.

꽃이 피었다.

꽃 … 꽃이, 꽃을, 꽃도, 꽃파.

부엌이 어둡다.

부엌 … 부엌이, 부엌에, 부엌도.

좋은 날씨다.

좋 … 좋아, 좋으니, 좋고, 좋다.

낮, 젖, 설것이, 낮, 빛, 숯.

웃녁, 새벽녘, 커다랗다, 노랗다.

내 말을 잊지 말아라.

모두 몇 사람이냐?

벗섬을 쌓아 놓는다.

고기를 낚는다.

낚 …… 낚아서, 낚으니, 낚고, 낚는다.

삯이 얼마나?

삯 …… 삿이, 삿을, 삿도, 삿만.

거기 앉아라.

앉 …… 앉아서, 앉으니, 앉고, 앉지.

사람이 많다.

많 …… 많아서, 많으니, 많고, 많지.

밖, 낚시, 넋, 얹어서,

끊으니, 언짢은, 귀찮다.

꽃을 꺾으면 안 된다.

이것은 내 몫이다.

책상 위에 얹어 놓아라.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

닭이 운다.

닭 …… 닭이, 닭은, 닭도, 닭파

나이가 젊다.

젊 …… 젊어서, 젊으니, 젊고, 젊다.

밭을 밟지 마라.

밟 …… 밟아서, 밟으니, 밟고 밟지.

돛이 되었다.

돛 …… 돛이, 돛은.

밝은, 맑은, 수탉, 넓다,

맑았다, 움아간다. 큼.

닭이 흙을 판다.

저 아이는 엄마 맑았다.

태평 양은 넓은 바다이다.

외 큼으로 생각한다.

수박 걸 훑기.

핥 …… 훑아서, 훑으니, 훑고, 훑지.

옳은 일을 하여라.

옳 …… 옳아서, 옳으니, 옳고, 옳지

값이 싸다.

값 …… 값이, 값을, 값도, 값만.

나무가 있다.

있 …… 있어, 있으니, 있고, 있다.

훑는다, 끓어서, 앓는다, 뚫으니.

읊으니, 없으니, 보았소, 먹었소.

어머니가 벼를 훑으신다.

시를 듣기 좋게 읊어라.

언제나 옳은 일만 하여라.

가엾은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

내일 서울로 가겠소.

1. 우리 나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역사를 가진 같은
겨레가 같은 땅터 안에 모이어
서 커다란 살림살이를 함께 하
고 사는 것을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대한 민국입니다.

우리 나라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좋은 물건도 많이 나
며, 사람들도 모두 다 좋습니다.
우리 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나라의 살림
살이를 아무쪼록 잘 하여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속담

세 살 벼룻이 여든까지 간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팔 심
은 데 팔 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흡다.
백짓장도 맞 들면 낫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얕은 내도 깊에 건너라.
등잔 밑이 어둡다.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쥐 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
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3. 애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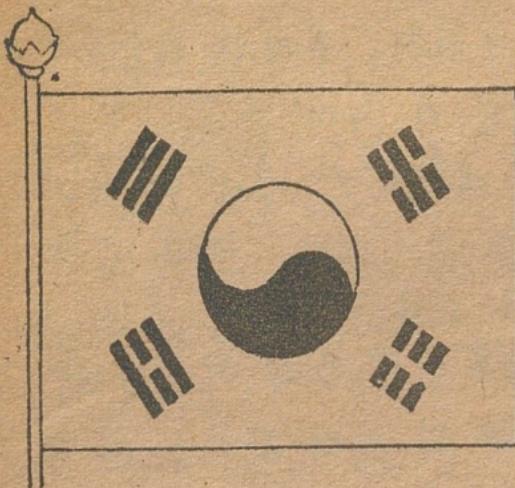
동해 물과 백두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 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 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 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 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4. 국 기



국기는
나라의
표입니다.
우리 나
라 국기
는 태극
기입니다.

태극기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우리 나라가 일본 손아귀에 억매이었을 때, 우리 태극기는 36년 동안이나 자취를 감추었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우리는 우선 우리 태극기를 찾아내어 하늘 높이 휘날리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태극기는 언제나 우리 겨레와 같이

살고, 우리 거레와 같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삼일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은 우리 국경일이니, 잊지 말고 집집마다 국기를 올립시다. 그 밖에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에도 국기를 올려서, 우리 나라의 영원한 번영을 축복합시다.

국기는 해가 뜰 때 달고, 해가 질 때 내릴 것이며, 하나인 때는 대문 안에서 보아서 문간 오른편에, 둘인 때에는 좌우에 나란히 또는 엇갈리게 달고, 비가 오는 날은 처마 밑에 세울 것입니다.

국기는 나라의 표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국기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국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기와 같이 경의를 표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5. 우리의 할 일

부지런히 배우세, 부지런히 일하세.

삼천만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힘을 다하여 일하세.

크고 큰 나무라도 다듬어야 쓰이고,

옥돌이 보배로되, 갈아야만 빛나네.

우리도 배우고 배워 좋은 사람 되오리.

조그만 깨울물도 한데 모여 바다요,

한 줌씩 흙이라도 쌓이면 산떼미라,

우리도 힘 다 모아서 큰 나라를 이루세.

6. 선거와 투표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나라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여 나가도록 하는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될 수 없으므로 우리 국민은 우리를 대신하여, 나라 일을 잘 할 사람을 뽑아 야만 하고, 뽑아 준 사람들의 뜻에 맞도록 나라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투표 권리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권리요,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대표하여 나라 일을 진심으로 책임

있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르게 선택하여야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투표하는 권리 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큰 잘못입니다.

선거와 투표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큰 권리 이므로, 우리들은 빠짐없이 투표를 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라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내도록 합시다.

7. 시 조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풀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 몽주—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병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에라.

—김 종서—

한산 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 호가는 나의 애를 끊나니.

—이 순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메만 높다 하더라.

—양 사언—

수 세기와 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이	삼	사	오
一	二	三	四	五
1	2	3	4	5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육	칠	팔	구	십
六	七	八	九	十
6	7	8	9	10

열하나, 열둘은 土 11, 土 12라고 씁니다.

다음 수를 읽어 봅시다. 또 써 보시오.

土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主	主	重	畱	重	亥	重	亥	禿	亥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𠂇	𠂇	𠂇	畱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0이 열이면 (100)입니다.

한글 첫걸음

지도하시는 분에게

이 “한글 첫걸음”은 그림과 날말과를 나란히 보여 날말을 학습하게 한 다음, 거기서 날자를 따로 떼 내어 “날내 보기틀”로서 날자 학습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한글 날자의 학습이 끝난 후, 이를 자모별로 지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글 첫걸음”은 종래의 “한글 첫걸음”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발침의 학습을 확실히 하는 것은 맞춤법 공부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종래의 “한글 첫걸음”에서는 비교적 등한히 한 것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자세히 풀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지도하시는 분은 언어 학습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방법이 글자를 자주 되풀이하여 눈에 익히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 책에서 그러한 점이 모자라는 곳은 칠판 또는 날말 카아드를 이용하여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아껴 씁시다

이 책은 국문교육을 위하여
나라에서 무료로 주는 책입니다.
책을 깨끗하게 씁시다.
책을 아껴쓰는 것도 나라에
크게 도움되는 것입니다.

단기 4287년 3월 5일 인쇄
단기 4287년 3월 10일 발행

국문독본

(국문교육법)

비. 매. 품.

지은이 겸
펴낸이
되 박 아
펴낸이

부
문 교 회
합동 도서 주식 회사
대표자 양 의 영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

본 자료는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으로 구축한 것입니다.